

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, 다도면 행정복지센터 협력 저수지 환경 개선

방치 쓰레기 수거 활동

이승주 기자

최종 기사입력 2026-04-10 14:28



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가 10일 다도면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나주호 상류 다도면 돌레길 공원 일원에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.(사진=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 제공)

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가 10일 본격 영농철을 앞두고 다도면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나주호 상류 다도면 돌레길 공원 일원에서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.

이번 행사는 양 기관 임직원, 마을주민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저수지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진행했다.

참여자들은 저수지 주변의 버려진 낚시용품,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농촌 환경정화와 경관개선에 힘을 보탰다.

특히 저수지 둘레길을 돌며 방치된 플라스틱 용기, 스티로폼, 고무매트 등 부유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으며 약 1톤 가량 수거된 폐기물은 다도면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지역과 협업 기반의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.

류화열 나주시사장은 "영농기 전 민관이 협력한 의미있는 환경정화 활동"이라며 "수질 관리 뿐 아니라 나주호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것"이라고 말했다.

한편 나주시사는 아름다운농촌만들기 활동 이외에도 올해 영농 일손 돕기, 취약계층 지원,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참여 등 ESG경영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나주=이승주 기자 13141910@
